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손소*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	기간	2016. 6. 25(토) ~ 7. 23(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UPM)은 마닐라에 위치하며 우리가 공부했던 Times-SLC 는 마닐라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수빅에 위치한다. 수빅은 생각했던 것 보다 깨끗한 도시였고 어학원은 5층 건물이며 생각보다 깔끔하여 생활하기 편리하였다.
수업	<p>레벨테스트를 시작으로 분반을 통해 그룹이 생기고 그 그룹으로 한 달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서로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업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p> <p>수업은 8시부터 시작되어 5시까지 진행되며 한 시간 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이 주어진다. 그룹 수업은 이슈, 멀티미디어, 문법, 듣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업별 책의 주제로 선생님과 함께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많다. 1:1 수업시간에는 책의 주제로 읽기, 듣기, 말하기를 동시에 연습할 수 있어 좋았고 선생님들도 모두 착하시고 긍정적이셔서 수업하기 편했다.</p> <p>과제는 거의 모든 수업마다 존재하지만 시간을 조금 투자한다면 모두 끝낼 수 있는 정도이다. 과제의 종류는 모든 선생님들 마다 다르다.</p> <p>영어로 모든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통해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수업에 적응 할 수 있었다.</p>
Activity	Activity는 학생들끼리 어디를 갈지 정하여 움직였다. 태풍이 와서 요트와 바다만 가게 되었는데 요트는 대만 학생들과도 같이 타러가서 좋았다. 학원에서 정보와 예약등 도움을 주시지만 팀리더께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감사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필리핀의 우기에 단기어학연수를 가게 되어서 습하고 비가 많이 왔다. 하지만 습한 기후는 적응이 되는 것 같다. 또한 비가 갑자기 많이 오기 때문에 우산을 꼭 들고 다녀야 한다.
안전	수빅은 총기소지가 불가능 하여서 돌아다닐 때 다른 지역보다는 걱정이 덜하였다. 큰 쇼핑몰을 들어가게 되면 항상 입구에서 경찰들이 가방을 검사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돌아다니면서 위협을 느낀 적도 없었다.
숙소	<p>학교기숙사(0)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는 3인 1실로 침대와 책상, 샤워실, 화장실이 존재한다. 침구류는 항상 깨끗하게 빨아서 주며 옷장과 옷걸이도 존재한다. 또한 냉장고와 에어컨도 있기 때문에 방 안에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다. 큰 나방이나 도마뱀이 많기 때문에 방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해야한다.</p>
식사	<p>학교식당(0) 홈스테이 () 외부식당 (0)기타()</p> <p>밥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식 위주이며 아침은 빵과 셀러드가 나올 때도 많다. 밥은 입맛에 잘 맞았다. 또한 저녁은 밖에서 해결 할 때도 많았는데 선생님들께 식당을 추천받아 맛있게 먹었다. 밖에서 먹을 때는 물이 수돗물이기 때문에 배탈을 조심해야한다.</p>
교통	필리핀에서 버스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인 FB를 타면 시내까지 삼십분 이내로 갈 수 있다. 가격은 13페소이며 밤에 어학원을 올 때에는 거의 택시를 이용하였다. 택시도 여러 명에서 탄다면 부담 없는 가격이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여행자보험,유학허가증,교재비,전기세,시설관리비,공항세	76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주말활동비용	70,000	주말활동비용
식비 및 유흥비	170,000	외식, 술, 디저트, 마사지 비용
쇼핑	70,000	
기념품 및 선물	70,000	
합계	38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 물놀이를 좋아한다면 수영복을 챙기는 것이 좋다. 또한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모자와 선크림을 챙겨 가는 것이 주말활동을 할 때 좋다.
- 돈은 달러로 환전하여 바꾸는 것이 좋으며 카드로 뽑는 것은 수수료가 많이 나와 넉넉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 우기에 온다면 항상 비가 오기 때문에 작게 접히는 우산을 꼭 챙겨가는 것이 좋다.
- 물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설사약이나 감기약 등 자신에게 맞는 약을 챙겨가야 한다.
-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선물을 준비해주셨는데 한국에 관련된 선물을 주지 못하여서 아쉬웠다. 많이 부담되지 않는 가격에서 선생님들 선물을 챙겨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영어 회화에 있어 항상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서 극복하고자 단기어학연수를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도 않고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선생님들과 같은 그룹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 하면서 자연스럽게 향상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비록 지금도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실력은 아니지만 단기어학연수를 다녀오기 전보다는 실력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문법과 발음과 단어를 신경 쓰면서 완벽한 문장을 말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었다. 선생님들께서 나의 말을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틀린 문장이어도 대화가 되었고 틀린 문장을 고쳐주시고 반복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것을 보고 많이 신기했다.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이 매우 낮았는데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 또한 한국에 돌아와서 영어공부를 꾸준히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필리핀에서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배울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다고 생각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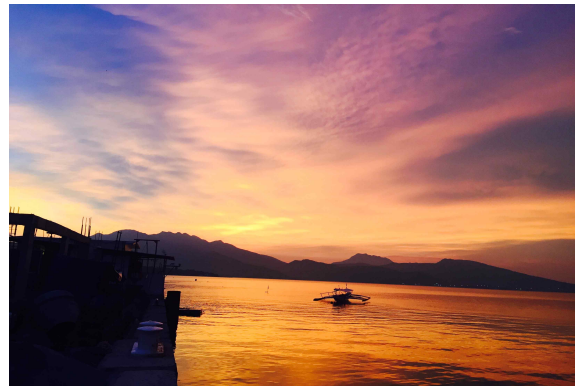
클락 공항 도착



요트 액티비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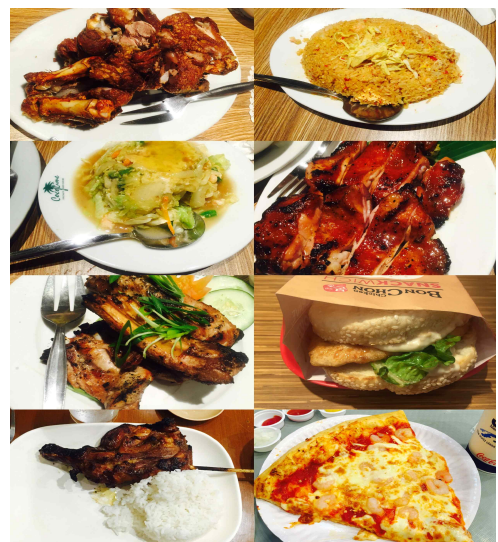
선생님들과 저녁식사



카마얀 비치



고아원 봉사활동



필리핀 음식